鬼神, 인간의 마음을 흔들다

1. 귀신의 두 얼굴, 공포와 매력

- 알 수 없는 존재에 대해서 가지는 인간의 근원적 공포와 그것에 탐닉하게 만드는 매력을 동시에 보여줌.

2. 조선 전기 귀신론의 성행

- 조선 초기 유학자들 사이에서 「귀신론」이 여러 편 발견됨.
- 김시습, 남효온 등
- 귀신의 문제를 유교적 합리주의로 해명해 보려는 시도로 보임.

3. 전기소설의 사회역사적, 정신사적 조건

- 전기소설은 원래 7세기 전후 당나라에서 발흥한 소설 양식. 논란은 있지만 대체로 初唐 말기 장작(張鷟, 660?-740?)의 <遊仙窟>을 효시작으로 봄.
- <최치원>에서는 <유선굴>의 영향을 명확히 발견할 수 있음.
- 그렇다면 중국의 영향으로 신라의 전기소설이 발생했다는 것인가? 물론 그런 점도 있지만, 더 중요한 것은 중국 전기소설의 독서 체험 위에서 한국의 전기소설을 성립시킨 창작 주체의 내면적 요구 내지는 문제의식이 과연 무엇이며, 그것이 갖는 정신사적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점일 것이다.
- <최치원>에서 가장 중요한 정서는 '고독감'이다. 세상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것에서 오는 고독감이므로, 현실에서의 '소외감'과도 연결된다. 이 소외감은 주인공으로 하여금 현실을 벗어나 세상 '밖'에 관심을 갖게 만들고, 夢幻的 세계에 젖어들게 한다.

4. 전기문학과 육두품

- 羅末麗初는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였고, 새로운 이행기였음. 커다란 역사 전환기.
- 육두품 문인들의 대응 : 전기소설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방식을 성찰 / 인간 운명을 구성하는 몇 가지 근본 형식들에 대해 탐구 / 새로운 가치관 모색 /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모색
- 이와 같은 다양한 개인 및 사회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그 의미를 물으면서 새로운 가치와 방향을 모색한 사람들이 신라의 육두품 계층. 그것은 전통적인 '詩文'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질문들이었음. 그 시점에서 문인들은 시문 창작을 통해 축적한 문학적 역량을 바탕으로 전기소설이라는 '허구'에 입각한 새로운 서사 장르를 성립시킨 것이라 할 수 있음.

5. 모든 전기소설이 <최치원>처럼 고독감을 보여주는 것은 아님.

- <호원> : 신분 갈등의 문제
- <조신전> : 신분적 불평등의 문제와 함께 백성들의 간난한 현실 문제 제기.
- <온달> : 신분의 벽을 넘어서고자 하는 바람.
- <설씨녀> <백운제후> : 인간이 지켜야 할 가치로서의 信義 문제.

6. 귀신 이야기를 다룬 책들

- 배형의『傳奇』, 구우의『剪燈新話』/ 蔡壽의『설공찬전』

7. 귀신의 의미

- 인간 욕망의 억압과 비밀스러운 표현
-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못하는 것들의 슬픈 자화상 혹은 소심한 복수
- 새로운 상상력의 분출